

전남 올 첫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가금농장 비상

강진만 야생 폐사체 확인...장흥 오리농장서 AI 항원 검출 방역당국, 1km 내 4개 농가 오리 등 7만1천여마리 살처분

올들어 처음으로 전남지역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체가 확인되고 오리농장에서도 잇따라 AI 항원이 검출되면서 전남 축산농가와 방역당국에 준비상이 걸렸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고니 폐사체를 정밀 검사한 결과, 이날 고병원성으로 판정됐다. 이는 전남지역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을 통틀어 올해 첫 고병원성 확진 사례다.

순천만 야생조류(흑두루미) 폐사체 검사에서도 H5형 항원이 검출된 상태다.

전남도는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시기에 인플루엔자 항원·고병원성이 잇따라 검출되는데, 금호호·영암호 등 지역 내 철새도래지가 적지 않고 전남이 전국 최대 규모의 오리산지라는 점에서 철새들의 이동 경로를 감안한 방역 활동에도 총력을 쏟고 있다.

야생조류가 아닌 장흥의 오리농장에서도 AI 항원이 검출돼 방역 당국이 예방적 살처분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지난 15일 의심 신고가 접수된 장흥군 부산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전남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부는 농림부 검역분부를 거쳐 1~2일 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섬진강 철새로부터 AI가 전파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를 비롯한 방역 당국은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오리 1만500마리를 살처분하는 한편, 인근 1km 내 위치한 4개 오리농가에서 사육중인 오리 6만400마리도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살처분한다. 장흥지역에서는 닭·오리 28개 농가(오리 21개 농가·닭 7개 농가)가 70만 8000마리를 사육중이다.

방역 당국은 또 16일 밤 9시까지 전남지역 전체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차량에 대해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하는 한편, 이번에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장흥 오리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를 특별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관리한다. 이 지역의 경우 엄격한 검사·승인 절차를 거친 뒤 입식·이동 등이 이뤄진다.

오는 21일까지 집중소독기간을 운영하면서 장흥과 강진, 보성지역 농장 주변도로 소독도 진행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내 전체 가금농장과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이동을 중지시키고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방역과 예방 강화로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사랑의 연탄 나눠요 광주시 남구 자원봉사센터와 울로우수 사랑봉사회(대표·최창규)는 16일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구 월산동 일대 독거 어르신 7가구에 이웃사랑 실천 사랑의 연탄 2000장을 전달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요양병원 외출·외박 때 개량백신 맞아야”

방역당국, 코로나 재유행에 21일부터 규정 강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등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외출·외박을 하려면 개량백신 추가 접종을 반드시 맞도록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1일부터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또는 확진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후에는 오미크론 대응 2가 개량백신을 맞아야만 외출이나 외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3·4차 추가 접종자나 확진 경험자 또한 똑같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내 종사자는 추가 접종을 받은 경우에 한해 현행 유전자증폭(PCR) 선제검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겨울철 재유행으로 일평균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있는 데도 추가 접종률이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6~12일 일주일동안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일평균 4만 9180명으로 전주 대비 15.8% 늘었으며 주간 일평균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349명)와 일평균 사망자 수(38명)도 전주 대비 각각 18.7%, 16.9% 증가했다. 감염재생산지수 또한 1.10으로 4주 연속 확산 기준점인 1을 넘어섰다.

감염취약시설과 고령층이 겨울 재유행에 특히 취약했다.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최근 4주간 316건의 집단 감염이 발생해 총 72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재감염 비중도 높게 나타나 지난 8주간 요양병원·시설의 전체 확진자 4만7513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는 1만2160건으로 25.59%를 차지했다.

또 최근 코로나19 전체 사망자 중에서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사례가 22.5%를 차지했으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에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각각 86.8%, 95.1%를 차지했다.

다만 감염취약시설에서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11.0%에 그쳤으며, 60세 이상의 추가 접종률도 13.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평생 모은 2억, 전남대에 익명 기부

익명의 독지가가 전남대학교에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2억원을 기부했다.

16일 전남대에 따르면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독지가가 지난 4일 전남대를 방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2억원을 기부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독지가는 “평생 모은 돈이다. 항상 기부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실천할 수 있게 돼 더없이 행복하다”며 “부디 작은 보탬이지만 인재 양성을 위해 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어 “전남대가 광주·전남 최고의 대학이기 때문에 기부한다”며 “비록 학교와는 아무 인연이 없지만, 또 이렇게 인연을 만든 것 같아서 기쁘다”는 말을 남겼다.

정성택 총장은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따뜻한 정성에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기 위해 전남대가 미래 인재들의 발판이 되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리산 반달가슴곰 지켜라

지리산국립공원, 불법 엽구 수거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는 지난 14일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합동 불법 엽구 수거했다고 밝혔다.

엽구는 짐승을 사냥하는데 쓰이는 도구를 뜻하는데, 이번 단속에서는 울무 4점과 창에(뿔) 2점이 수거됐다.

지리산국립공원에서는 지난 2004년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시행한 이후 5마리가 밀렵꾼의 울무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매년 겨울철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밀렵을 단속하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뿔·울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고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차수민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밀렵 및 엽구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과 함께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며, 사람과 야생동물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전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학벌없는 시민모임’ 성명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16일 성명을 내고 전남도교육청에 “교육감 직권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 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TF팀을 만들었지만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차별 금지’ 조례 조항을 문제 삼아 끝내 조례 제정이 다시 무산됐다”면서 “현 교육감의 공약사항에 인권조례 제정이 포함되지 않은 점, 2019년 12월 이후 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회가 개

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 때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포기한 것처럼 비취진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당시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항목으로 차별의 이유 중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삭제 여부를 놓고 번번이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전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논의해 왔지만 매년 좌초됐다”면서 “학교생활 지도상의 인권 침해 규제를 위한 조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광주디지털훈련센터

장애인 직업훈련생 모집

소프트웨어 (SW)

빅데이터인공지능 (AI)

미디어콘텐츠 (VR)

디지털리터러시 (오피스활용)

062)380-0606, 064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디지털훈련센터